

“資源不足하나 技術革新으로 繁榮하는 日本”

— 日本總理府招請에 依한 日本視察記 —

雙龍洋灰工業株式會社

營業第一課長 鄭 泰 卿

〈차 례〉

序 言

1. SONY는 資本金 500 \$로 創業
2. 從業員訓練에 熱中하는 日本企業
3. 歐羅巴注文받는 日本의 造船工業

4. 民需用包裝洋灰도 袋當 50 kg入
5. 앞아서 外貨獲得하는 「미끼모도」眞珠
6. 東京國立博物館의 우리 文化財
7. 明治記念繪畫館의 韓日合邦 그림
8. 다시 만날 때는 統一韓國을 代表하라

序 言

筆者는 우리 政府의 추천 및 日本政府總理府의 招請에 依하여 1970年 10月 12日(月) 渡日, 11月 1日까지 3週間 日本의 經濟·社會·文化界를 둘러보는 機會를 가졌다.

이번에 日本政府에 依하여 招請된 사람은 韓國에선 筆者와 「유네스코」의 黃柄極氏, 「씨일론」의 首相秘書官 Mr. Sunimal Fernando, 泰國의 首相室女官吏 Miss Lawalyn Valyasevi 와 Miss Yenruedee Wongsbudh, 香港의 政廳官吏 黃鈞鴻氏, 「파키스탄」의 社會福祉局副局長 Mr. Miter Mohammad Ali 등 7名이었다.

日本總理府官吏들의 案内下에 우리가 訪問한 日本의 主要都市는 東京, 名古屋, 四日市, 津, 松阪, 伊勢, 京都, 大阪, 岡山, 高松(四國), 鳴門, 洲本(淡路島), 神戶, 大津等地였다.

우리가 둘러본 主要産業施設은 東芝科學館, SONY「시나가와」工場, 四日市港灣施設, 四日市 石油工業「콤비나트」, Honda工場, 「나쇼날」津工場, 「미끼모도」眞珠養殖島, 信樂町窯業研究所,

近江化學陶器株式會社 信樂町工場, 川崎造船所, 高松技術開發센타, 高松農業試驗場, 森繁家具工場, 香川縣立栽培漁業센타, 岡田石材工業株式會社 高松工場, 大川農業協同組合長尾支所, 東亞 고무工業株式會社 大阪工場 등 實로 多彩로운 것이었다.

그리고 産業施設을 視察하는 間간이 둘러본 日本의 社會 및 文化施設은 東京都兒童會館, 올림픽記念靑少年總合센타, NHK放送센타, 伊勢神宮, 鳥羽水族館, 京都平安神宮, 二條城, 京都府立總合資料館, 「기온·코나」, 四國高松栗林公園, 四國新聞社, 少林寺, 國民休暇村五色臺, 高松市立中野保育所, 香川縣立肢不自由兒童센타, 國立淡路靑年의 家, 上野動物園 및 水族館, 東京國立博物館, 明治神宮, 明治記念繪畫館, 日本시멘트協會研究所, 大倉集古館, Tokyo Tower, 交通博物館, 北의 丸公園, 早稻田大學 등이었다.

3週日의 짧은 期間에 한시도 쉬지 않고 每日 強行軍을 하며 눈을 비비고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고 귀를 기울여 너무나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일일이 다 枚舉할 수는 없고 斷片

的으로 두드러진 것만 몇가지 紹介하기로 한다.

1. SONY 는 資本金 500 弗로 創業

오늘날 갖가지 電子製品으로 世界市場을 누비고 있는 Sony 會社가 戰後(1946年)에 資本金 500 弗을 가지고 創業하여 當時 從業員 20名에 不過하던 家內手工業의工場이 現在 13,000 名의 從業員을 擁하고 世界的販賣網을 갖춘 大企業으로 成長하였다.

우리一行이 Sony 「시나가와」工場을 갔을 때 Sony 는 1946年에 資本金단돈 500弗을 가지고 東京通信工業株式會社라는 이름으로 出發하여 오늘날의 大 Sony 로 자라온 過程을 보여주는 寫眞을 複道에 자랑스러이 展示하고 있었다.

Sony 의 創業者인 現社長 「마사루 이부카」와 副社長 「아끼오 모리마」는 「남이 하는 것은 우리는 안한다. 世界의 모든 市民에게 가장 適切하고 迎合되는 新製品을 우리는 開發한다」라는 信念과 哲學을 지녀왔다고 한다.

Sony 의 企業理念을 英文그대로 紹介하면 아래와 같다.

「Sony never intends to follow others,
and in blazing the path of opening new fields
where no one has ventured,
Sony hopes to find its own way to progress.
Through progress, Sony wants to serve the
whole world. Sony is a pioneer and always
a seeker of the unknown.

The road of a pioneer is full of difficulties,
but in spite of the many hardships,
people of Sony always unite harmoniously
and closely because of their joy of participat-
ing in creative work and of their pride in
contributing their own unique talents to this
aim. Sony has a principle of respecting
and encouraging every ones ability

—the right man in the right post—
and always tries to bring out the best in a
person, and believes in him and constantly
allows him to develop his ability. This is the
vital force of Sony.」

- 即 Sony 는 (1) 開拓者의 精神에 依한 進歩
(2) 發展을 통한 全世界에의 奉仕
(3) Sony 社員의 人和와 團結
(4) 各者能力의 啓發과 尊重
(5) 個人의 最善點發掘및 信任
(6) 個人能力開發의 繼續의 許容

을 企業理念 및 信條로 삼고 있으며 이것이 곧 Sony 의 根本의 힘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企業들과 한번 比較해볼 必要가 있
지 않을까?

우리는 남을 뒤쫓으려 하지 않고 前人未踏의
새로운 分野를 여는 길을 밝히면서 進歩를 위하
여 우리自身の 길을 찾으려 하고 있는가?

이러한 發展을 通하여 우리는 온 世界를 위하
여 奉仕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파이오니어」이며 未知에 對한 探究者
인가?

「파이오니어」의 길은 荆棘의 길이다. 많은 險
路와 難關에도 不拘하고 創造의일에 參與하고 있
다는 기쁨과 이 目標을 向하여 우리의 唯一한 才
能을 바치고 있다는 自負心에 依하여 우리는 恒
時 人和團結이 되어 있는가?

適材適所의 人事基準下에 個個人의 能力을 啓
發하고 尊重하는 原則이 우리나라 企業안에 確
立되어 있는가? 그리고 個個人으로부터 그들의
最善點을 發掘해 내려고 애쓰고 있으며 個個人
을 信任하고 있는가? 또한 個個人의 能力開發
을 繼續의으로 許容하고 있는가?

위의 質問에 對하여 모두 Yes 라고 對答하지
못하는 企業이라면 世界를 向한 企業으로서의 飛
躍의 成長을 約束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2. 從業員訓練에 熱中하는 日本企業

青海, 白砂, 綠山으로 連結되어있는 瀨戶內海
國立公園의 東端에 位置하여 南으로 太平洋, 西
로 四國의 山을 바라보고 鳴門의 소용돌이 海峽
을 끼고 있는 淡路島에 「國立淡路青年의 家」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 一行은 四國의 鳴門에서 連絡船을 타고
風光明媚한 瀨戶內海를 航海하여 옛날 귀양을 가
다 많이들 빠져 죽었다는 鳴門소용돌이 물길을 지
나 淡路島의 「國立青年의 家」에 到着했던 것이다.

이「國立青年의 家」는 文部省의 統轄下에 年間 1億圓의 豫算으로 運營되고 있는데 이러한「國立青年의 家」가 全國에 大雪, 磐梯, 中央, 阿蘇, 淡路, 江田島 등 6個所에 있으며 明年에는 赤城에 하나가 더 는다고 한다. 公立이나 縣立은 全國에 164個所나 있다고 한다.

이「青年의 家」는 (1) 規律바른 團體宿泊訓練을 行하여 心身이 共히 健全한 青年을 育成하고 (2) 計劃的인 研修「프로그램」에 依하여 規則바른 生活를 하게하며 (3) 研修生活를 通하여 規律協同, 友愛, 奉仕等의 精神을 길러주고 (4) 體育野外活動을 通하여 健全한 身體를 만드는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곳의 施設을 보면 400名을 收容할수 있는 講堂이 하나, 16人부터 90人을 收容하는 研修室이 10, 「테이프레코더」, 映寫機, 환등기 등이 設備되어 있는 視聽覺室, 피아노 아코디언 기타 스테레오 電蓄등이 갖추어져있는 音樂室, 食堂, 談話室, 體育館, 「그라운드」, 「테니스」및 농구「코트」, 水泳풀, 宿泊施設등이 있다.

「Youth House」나 「Youth Center」나 하는 施設들은 戰後 一部 放縱해진 日本의 젊은이들을 爲로 先導, 育成함이 第一目的이었을 것임을 直感하였으며 오늘날은 日本 企業體들의 從業員들을 訓練시키는 訓練場으로 많이 活用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우리가 들러 본 研修室에서는 日本有數의 大企業인 東洋棉花株式會社, 石川島播磨重工業, 三菱電機 등의 社員들을 訓練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커리큘럼」을 보니 (1) 會社에 關한 「오리엔테이션」 (2) 海外勤務乃至 出張에서 돌아온 先任社員의 體驗談 (3) 審査, 經理, 輸出, 輸入, 國內販賣, 海上保險 등에 關한 實務講義등이 있다. 갖가지 分野에 從事하는 全社員에게 營業實務 (특히 輸出)를 必須科目으로서 重點의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從業員을 이렇게 全社의營業第一主義로 訓練, 武裝시켜 一線에 내보내니 世界市場으로의 進出이 빠르고 넓을수 있었겠다고 생각했다.

團體生活를 시킴으로써 참으로 友愛로운 人和와 團結이 이루어지고 實務를 海外및國內市場에서 생생한 體驗을 쌓은 先任者들이 가르침으로서 各인 個個의 力꾼으로 길러지며 各種스포츠

를 시킴으로써 意慾과 精力과 推進力이 넘치는 健全한 體力를 갖추도록 해 준다.

우리나라의 企業들도 이제부터라도 社員 訓練에 依한 人材養成에 좀더 머리를 쓰고 돈을 들여야 될 것이다.

3. 歐羅巴注文받는 日本의 造船工業

四國에 있는 州崎造船所를 가보니 「노르웨이」로부터 注文받는 23萬噸級 油槽船을 建造하고 있었으며 西獨으로부터 注文받는 22萬噸級 油槽船은 建造를 마치고 마지막 손질 (Finishing Touch)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巨艦船 하나를 建造하는데 同 Dockyard에서 70日 밖에 걸리지않는다고 한다. 배의 規模를 소개하면 「스크루」의 直徑이 8m이고 배의 길이가 300m 폭이 50m, 높이가 25m이다.

이렇게 巨大한 배의 建造를 우리가 世界的 大海洋國으로 알고 있는 「노르웨이」로부터 注文을 받고 모든 工業分野의 Technology에 있어서 世界頂上國으로 알고있는 西獨으로부터 注文을 받고 있다는 事實은 日本이 백년이 넘지않는 明治때만 하더라도 日露戰爭의 旗艦「三笠」(東郷元帥가 타고 指揮한 배)를 英國에서 사들였던 것이라는 事實과 比較해 볼때 實로 長足の 發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民需用包裝洋灰도 袋當 50kg入

日本에서 包裝洋灰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日本의 시멘트流通은 거의 다 「레미콘」化하여 都市나 地方이나 「레미콘」추력은 많이 볼수 있으나 包裝洋灰를 輸送하는 추력은 보기 힘들다. 筆者도 職業意識이 發動하여 시멘트의 流通狀況을 살펴보고 오고 가는 車輛마다 유심히 보았는데 本洲地方에서는 包裝洋灰輸送 추력을 한대도 보지 못하였고 四國에 건너가서야 한대를 보았을 뿐이다. 따라서 「Bagged Cement」를 直接 만져 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不問可知일 것이다.

그리하여 四國高松市의 技術學校에서 미장이 科實習用 包裝洋灰를 비로서 만져 보았는데 여러 가지 「브랜드」의 시멘트가 모두 袋當 50kg入에 다 3ply 紙袋였다.

우리 나라도 年前에 標準規格을 50 kg으로 고쳤다가 施行도 못해 보고 다시 42.638 kg과 50 kg의 併用이라는 이름아래 還元措置된 일이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民需用洋灰를 50 kg入으로 包裝해 본 일이 없다. 그當時 50 kg入 包裝을 하지 못하겠다고 내세운 理由는 50 kg이 韓國 사람의 體力으로는 取扱하기에 過重하다는 것이었고 紙袋도 4 ply 紙袋로부터 5 ply 紙袋로 1 ply를 늘여야 하기 때문에 非經濟的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體格이나 體力로 따지자면 日本 사람이 韓國사람보다 矮小한데도 不拘하고 日本이 50 kg으로 包裝하고 있으며 日本洋灰紙袋가 5 ply 紙袋가 아니라 3 ply 紙袋임을 筆者가 日本의 洋灰紙袋를 몇 개 찢어 보면서 確認한바에야 「非經濟的의云云」도 語不成說이다.

자고로 商品의 重量單位가 오늘날 우리 나라 시멘트業界가 準用하고 있는 42.638 kg Net入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42.638이라는 數字는 그것으로 끝난 數字가 아니라 42.638……로 繼續되는 數字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94 Lbs를 kg으로 換算한 無理에서 緣由가 있겠지만 도무지 計算上으로도 어려운 數字이다. 우리도 民需用 包裝洋灰를 袋當 50 kg入으로 고친다면 重量單位가 明瞭하고 計算과 統計가 얼마나 容易할것인가?

오늘날과 같이 1 屯이 23.453 포대라고 하여 屯으로 換算하자면 恒時 머리를 가웃동해보아야 하는 不便이 없게 될 것이고 1 屯이면 20 포대라고 하여 명랑하게 計算이 될 것이다. 또한 輸出用洋灰를 包裝하다가 民需用洋灰를 包裝한다면 民需用洋灰를 包裝하다가 輸出用洋灰를 包裝한다고 할때, 그때마다 包裝機의 스케일을 힘들여 調整하는 不便과 헛된 空白時間도 拂拭될 것이다.

高松市の 岡田石材工業株式會社の 「프리캐스팅 콘크리트」工場에서 쓰고 있는 包裝洋灰의 價格을 屯當 6500圓~7000圓이고 「벌크·시멘트」價格은 噸當 6000圓이라는 것이다. 「벌크 시멘트」의 供給經路를 보면 山口縣의 宇部工場으로부터 200 km를 海送되어 와서 다시 40 km를 「벌크추력」으로 陸送되어 온다는 것이다. 「벌크 시멘트」를 購入使用함에 있어서 시멘트會社에 對해서는 一切 保證金같은 것이 없으며 도리어 시

멘트 會社가 「서비스·싸이로」등 設備를 提供해 주고 있다고 한다.

保證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商去來에 있어서 信用이 確立되어 있다는 證左이기도 하다.

5. 앞서서 外貨獲得하는 「미끼모도」 眞珠

三重縣 鳥羽에 가면 御木本眞珠島가 있다. 오늘날 世界的으로 眞珠의 代各詞가 되어 버린 「미끼모도」의 本山이다.

御木本幸吉은 多年間의 研究와 努力 끝에 1893年 眞珠를 養殖하는데 成功하였다. 그의 最初의 養殖 眞珠를 成功시킨 곳이 이 御木本眞珠島라는 것이다. 그는 처음에 半球型 眞珠를 養殖하는데 成功하였고 몇 년 후에 完全球型 眞珠를 養殖하는데 成功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1954年 9月 21日 96歲를 一期로 세상을 떠났는데 「世界 女性의 목에 眞珠를 裝飾하겠다」던 眞珠王의 銅像은 御木本眞珠島의 一角에 세워져서 그의 눈은 멀리 太平洋을 바라보고 있어 海外로 向한 그의 執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眞珠島안에는 御木本幸吉記念館, 「미끼모도」眞珠博物館, 「미끼모도·펠·홀」作業場 등이 있다.

여기에 歐美男女觀光客들이 몰려들어 너도나도 眞珠목걸이, 眞珠반지 등을 사기에 바쁘다. 日本 사람들은 앞서서 外貨獲得을 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에도 「미끼모도」같은 「파이오니어」가 나와서 앞서서 外貨獲得하는 날이 와야만 하겠다.

6. 東京國立博物館의 우리 文化財

東京 上野에 있는 東京國立博物館에 가니 15世紀부터 18世紀間 李朝時代 名畫들이 展示되어 있었다.

即 15世紀에 姜希顔이 그렸다고 傳해지는 山水圖, 16世紀에 李上佐가 그린 雨中猛虎圖, 15世紀에 李霆이 그린 竹圖, 16世紀頃에 魚夢龍이 그렸다고 傳해지는 墨梅圖 18世紀에 鄭善이 그린 山水圖 등이었다.

「朝鮮美術」이라는 패말이 붙어 있는 展示部에는 우리나라 三國時代, 高麗時代, 李朝時代의 金冠, 銅鏡磁器, 刀劍, 佛像 등 갖가지 文化財가 많

이 展示되어 있는데 同時代의 亞細亞各國의 遺物과 比較해 볼 때 韓國것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中國 것을 除하고는 우리 것이 그 중 優秀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日本사람들도 우리 나라 文化財를 들여다 보며 韓國의 옛 文化가 意外로 發達되었었다고 感歎하는 것을 目擊하였다.

7. 明治記念繪畫館의 韓日合邦 그림

明治神宮外苑에 있는 所謂 明治天皇聖德記念 繪畫館에 들어가 보니 明治維新의 歷史의 章들이 東洋畫와 西洋畫로 그려져 展示되어 있는 중에 畫題가 「日韓合邦」이라는 것이 있어 啞然失色하였다.

그 그림에 關한 說明文을 그대로 紹介하면 아래와 같다.

「時：明治 43年 8月 22日 (1910年)

所：京城南大門 (朝鮮)

奉納者：朝鮮各道 畫家 過永(ひさし)

Subject：The union of Korea and Japan (Aug. 22nd 1910)

我國의 對外關係는 옛부터 朝鮮問題에 起因한 일이 많다. 日淸·日露의 兩戰爭도 朝鮮問題가 動機였다. 日露戰爭의 結果 韓國은 日本의 統治下에 들어갔다.

明治 43年 8月 22日, 日韓合邦條約의 調印이 이루어져 29日 天皇으로부터 兩國合併의 말씀이 있었고 새로히 朝鮮總督府가 設置되었다.」

우리나라가 日本의 統治로부터 解放되어 光復된지 어언간 25년이 지났고 우리 나라가 獨立한지도 22년이 넘었지만 「日韓合邦」이라는 畫題의 그림이 如前히 展示되어 있고 더구나 그 說明文이 그들의 侵略戰爭인 淸日, 露日의 兩戰爭이 마치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으켰던 것처럼 써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은 獨立된 이 나라 國民의 一員으로서 볼 때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外務當局은 日本政府에 交涉하여 民族的으로 羞恥스러운 이 그림을 하루 빨리 철거해 버리기 바란다.

8. 다시 만날 때는 統一韓國을 代表하라

저녁마다 호텔房에서 熱띤 討論을 거듭하고 낮

에는 強行軍을 같이 하며 生死苦樂까지는 아니더라도 同苦同樂하던 外國의 代表들과 離別하는 날이 왔다.

「會者定離」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亞細亞의 5 個國代表들은 日本政府의 招請에 依하여 함께 모여 뜰뜰 뭉쳐다니다가 이제 제각기 흩어져 제나라로 돌아갈 날이 온 것이다. 그 동안 그래도 情이 들었다고 離別은 섭섭한 것이었다. 우리는 神戶를 向하여 「아와지」 섬을 떠나올때 連絡船의 乘客과 埠頭가의 家族親知들이 五色테이프를 서로 잡고 「로렝사인」의 音律下에 슬픈 離別을하는 情景를 보았었는데 우리도 그와 비슷한 꼴이 되고 말았다.

「파키스탄」代表 「미텔·모하메드 알리」가 내 손을 꼭 부여 잡더니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그대는 온 韓國을 代表해서 나오시오 半쪽만의 韓國이 아닌 統一된 韓國을 代表해 나오란 말이오」 하는 것이었다. 筆者도 곧 반아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그대도 파키스탄만을 代表해 나오지 말고 印度와 統一하여 代表해 나오시오」 하였더니 그는 破顏大笑를 하면서 「파키스탄은 印度와의 「유니온」을 원해도 印度가 원치 않는 구려」하는 것이었다.

民族의 念願인 國土統一은 우리 生前에 기여이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統一된 韓國의 國民으로서 世界에 國威를 宣揚할 機會가 있지 않을 것인가?

끝으로 筆者가 日本政府에 提出한 報告書(英文)의 要旨를 여기에 附記한다.

Report

It was great pleasure and very fruitful for me to have this opportunity to observe various industrial, cultural and social facilities of Japan.

I was very impressed by Japan's brilliant achievement in technology and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agriculture.

I could not but feel from the people of Japan it would not be too far from the truth to emphasize that the economic miracle achieved by Japan will be rare example of its kind in the world.

Certainly, Japan has been well on the way

to sound and prosperous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The abundant labor force available at a comparatively lower cost, the excellent ability of the Japanese people to adapt themselves to new developments and circumstances and, above anything else, their burning desire and eagerness to work hard — all these have been the basic factors that have been made the remarkable and splendid progress in Japan today possible.

The Japanese people have developed a high degree of manufacturing industries, especially such as shipbuilding, steel, chemical and electronics industries.

Japan import raw materials and export the finished materials made of the former back to foreign countries, thus contributing a lot to the increase of export and of foreign exchange earning.

It was very impressive for me to see the Japanese shipbuilding industry that is building now many huge tankers by the order of Norway and West Germany.

when I looked down over to the Japanese villages aboard a bus or train I immediately noticed the eagerness of Japanese farming families to exploit and utilize every single lot of land available for an increased harvest of rice, other grains, Japanese oranges, teas and various vegetables.

How to continue to expand Japan's economy at the pace of the past years will be one of the vital problems of Japan.

But, I am convinced to quote the optimistic opinions as follows.

Japanese workers will continue to work with zeal and diligence of the past.

Japan will continue to absorb and improve on the technology of more advanced countries. Japan's lack of raw materials will become ever less of a hindrance as larger bulk carriers come into service and factories are located near deep water ports.

And balance of payments problems which in the past forc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keep a constant brake on the economy, are unlikely to reappear.

In conclusion this invitation program is very meaningful and helpful for better mutual understanding, strengthening friendly ties and relationship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other Asian countries.

I am greatly appreciated for the world famous Japanese hospitality rendered to us during our tour in Japan.

I sincerely thank Mr. Takeshi Yamazaki Miss Eikeo Nakamura and Miss Naoko Kitayama of Prime Minister's Office for their wonderful guide.